

탈(脫)중심의 신앙인 김교신¹⁾

신 의 상 (감신대 강사,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김교신의 삶과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세계인들에게 주는 감동과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식민지 국가의 지식인이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물어야 했던 한 사람의 부단한 일상성(日常性)이지 않을까?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떤 결정적 계기마다 등장하는 영웅들을 기대한다. 그들의 비범함이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고 선한 진리를 성취하였으리라고 대망하면서 말이다. 어쩌면 그들의 비범함에서 오늘의 모순을 타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리의 성취는 비범함에 있지 않고 평범함에 있다. 평범함이 진리다. 보통 평범함은 비범한 사람들을 찬양하는 지배담론에 의해 변방으로 내쫓긴다. 그래서 평범한 존재들은 진리의 외곽에 놓인 비존재,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자취를 감춘다.

김교신의 이야기는 바로 이 외곽, 지배담론과 이 담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위계질서에 의해 바깥으로 내몰린 광야, 위계질서의 말단보다 더

1) 이 글은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지원한 “한국신학 번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글, “김교신의 생애와 사상” 중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 수정한 것이다.

아래에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는 평범함을 일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교신은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살아낸 인물이다. 비범한 교회들 바깥에서 평범한 기독교자의 삶을 살았고, 이 삶을 연장하여 비범한 일제식민지배의 외곽에서 식민지 한국 민중의 평범한 삶이 일상적으로 가능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평범함은 혁명적이다. 비범한 지배담론이 제시하는 평범함이 허구임을 드러냄으로써 평범함은 지배담론 내에는 없고 지배담론 바깥에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김교신의 삶과 사상은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스럽지도 않은 꾸준함이었다. 이 꾸준함 속에서 평범함이 일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자본주의 외곽으로 내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일상적인 평범함에서 벗어나게 된 오늘날, 김교신이 생각하며 살았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평범함의 소리 없는 외침은 고단한 오늘을 사는 외곽의 사람들에게 한 움큼 해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김교신의 탈(脫)중심적 삶, 그 세 장면

먼저 김교신의 삶 세 장면들을 확대해서 살펴보자. 그가 온 열정을 쏟아 부은 『성서조선』에 얽힌 장면들과 교사로서 학교에 몸담으면서 지냈던 생활의 장면들, 그리고 흥남질소비료공장에서의 장면들. 이 세 방면의 장면들은 김교신의 삶이 탈중심의 생활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탈중심. 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것, 갈릴리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 그래서 벗어나는 해방이자 들이대는 저항이다. 즉, 존재와 비존재를 양단으로 해서 줄을 세우는 계열화를 폭로하고 거부하는 일이다. 존재에 의해 비존재로 내몰리는 현장,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장, 생명이 생명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그 현장의 당사자들이 내는 목소리가 말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탈중심은 영웅주의와 함께 할 수 없다. 탈중심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 일거에 비존재로 하여금 존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록 돕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결코 영웅일 수 없는 비존재가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됨을 말하는 일이다. 영웅은 담론을 만들고 계몽을 시도하지만, 제값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비존재로 내몰린 이들은 담론을 허물고 계몽을 멈추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교신은 탈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며, 따라서 김교신은 신앙적 영웅이 아니었다. 일본제국주의의 한 식민지에서 살았던 식민지 기독교인으로서 그 체제를 폭로하고, 비존재의 목소리를 낸 존재로서의 비존재였다. 김교신의 삶은 이러한 의미의 생활들로 꾸러졌다.

1) 장면 #1: 교회와 조선, 그 안쪽 또는 바깥쪽

『성서조선』과 관련된 장면들 몇 군데를 확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장면은 『성서조선』이 처음 창간되던 때다. 이때 김교신은 창간사를 맡아 썼다. 1927년 7월의 이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교신자보다도 조선혼을 소지(所持)한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성서조선』아, 네가 만일 그처럼 인내력을 가졌거든 너의 창간 일자 이후에 출생하는 조선 사람을 기다려 면담하라. 상론(相論)하라. 동지(同志)를 한 세기 후에 기(期)한들 무엇을 탄핵손가.²⁾

『성서조선』이 찾는 독자는 기왕의 기독교신자들이 아니었다. 조선의 정신을 잃지 않은 조선인이 『성서조선』이 찾는 독자들이었다. 이 사실은, 『성서조선』이 교회 바깥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교회의 정신이 담긴 이 지향은 진리 실천의 장이 교회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향이 중심으로서의 교회를 해체해버리고 끝나

2) 김교신, “『성서조선』 지 창간사”, 『전집1』, 21쪽.

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들, 곧 조선의 혼을 가진 민중들의 중심성을 회복시키는 운동으로 나아간다.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일은 자신의 유일한 진리 실천의 장(場)인 조선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³⁾에 있다고 보았기에, 중심을 교회에서 조선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회의 진리 주장은 자신의 중심성을 절대화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김교신은 바로 이 점을 비판한다), 조선의 진리 실천은 자신의 비중심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절대화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김교신의 입장은 『성서조선』이라는 책명을 풀어 설명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는 ‘성서조선’이란 ‘성서와 조선’,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의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서와 조선’이란 말을 통해서 성서의 진리성을 조선이라는 주체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다. ‘성서를 조선에’라는 말을 통해서 성서의 진리성을 가지고서 조선이라는 주체성이 나아가야 할 바를 설정하겠다고 밝힌다. 마지막 ‘조선을 성서 위에’라는 말을 통해서 성서의 진리성이 다만 조선이라는 주체성의 지향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아예 조선의 토대가 되어야 함을 밝힌다.⁴⁾

『성서조선』의 이러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김교신이 우선적으로 감행한 일은 진리 주장은 있으면서도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조선의 교회들과 식민지배라고 하는 시대를 향한 신랄한 비판이었다. 먼저는 성서의 진리성을 교회의 배타적인 절대성 주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요, 또한 조선의 타자화(他者化)된 비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김교신의 메시지에서 위로와 희망 또한 발견할 수 있다.

3) 양현혜, 『김교신의 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131쪽.

4) 김교신, “『성서조선』의 해(解)”, 『전집1』, 21-23쪽. 참조: 또한 양현혜, “김교신, 함석헌 그리고 우찌무라 간쵸”, 『한국교회사학회지』 18(2006), 81쪽 참조.

흥미로운 것은 비판과 위로 사이에 시대에 부응하는 김교신의 유연함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글은 1930년대 말에 이르기 전까진 의(義)의 기독교를 강조하면서 ‘예언자적인 날카로움으로 시대와 교회를 비판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1930년대 말을 지나면서 중일전쟁과 더불어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전진기지로 꾸러지고, 조선총독부의 무단폭력지배와 황민화정책이 신사참배를 중심으로 거세지자 상황이 바뀌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는 교회들은 일제에 의해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하여 이제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교신은 아예 무교회주의의 원칙을 고치면서까지 교회에 손을 내민다. “우리를 이용하라”⁶⁾면서 교회에게도 문을 연다. 이제 교회에게도 시대에 게도 절실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이었다. 얼어붙은 겨울 속에서 봄을 노래하며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⁷⁾ 외쳐야 했던 것이다.

비판과 예언에서 희망과 위로로의 전이는 김교신의 신앙생활이 탈중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그의 비판은 교회나 시대 자체를 향하지 않고 배타적인 중심성을 향했다는 말이다. 중심이 일본의 군국주의로 확 기울고 조선의 교회들이 주변부로 내몰리자 김교신은 중심을 차지한 일본제국주의의 절대화 경향에 저항하면서 교회를 포함한 비중심적 비주체들을 끌어안고서 주체성을 향하는 길을 함께 가며 연대하고자 했다.

연대의 결과는 성서조선사건이라는 대량 투옥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장면을 들여다보자. 김교신과 동지들이 투옥된 직접적 원인은 “조와”(弔蛙)라는 권두의 글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서였다. ‘조와’란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개구리는 조선인을 뜻했다. 이 글의 내용인 죽은, 흑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동사한 개구리들을 봄 비 쏟아지는 새벽녘에 발견하고는 그 시체들을 모아 매장하고 난 후, 다시 보니 연못가

5) 백소영, “김교신의 ‘서당식’ 기독교”, 『기독교사상』 48.1 (2004.1): 244쪽.

6) 김교신, “우리를 이용하라”, 『전집1』, 213-214쪽 참조.

7) 김교신, “조와(弔蛙)”, 『전집1』, 38쪽.

에 아직 살아있는 개구리 두어 마리를 발견하고는 희망의 탄성을 올렸다는 이야기다 —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조선인의 희망을 발견한 것이자 겨울을 몰고 온 일제를 비판한 것이다. 일제의 중심성을 탈하려는 몸짓이자 조선의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몸짓이었다.

그리하여 김교신에게 교회와 조선은 그 안쪽에 있어도 좋고 바깥쪽에 있어도 좋았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서 중심성을 배타적으로 절대화하려는 시도에 저항하고 주변부로 밀려나 배제되는 존재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2) 장면 #2: 탈(脫)학교

김교신은 3·1운동 직후 일본으로 유학하였다가 8년 만에 귀국하여 15년간 교편을 잡았다. 이 시기 동안 그의 교육철학은 영혼의 각성을 통한 인간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⁸⁾ 영혼의 각성이란 ‘하느님에게만 의지하는 독립·자립한 인격 형성’⁹⁾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각성은 조선인이라면 언제나 조선을 바탕으로 하는 각성이기에 조선적인 인간화 교육으로 귀결하게 된다. 아닌 게 아니라 김교신의 학교생활은 고스란히 조선적 인간화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김교신 자신에겐 매우 힘겨운 일이었다. 당시의 정상교육이란 조선적 인간화 교육이 아니라 일본화를 목표로 하는 황국신민화 교육이었으니 말이다. 일본적인 것을 강조하는 학교현장에서 그는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는 학교생활을 하였다. 게다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조선적인 것을 강조했기에 더욱 일제의 교육방침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김교신의 학교생활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학교를 벗어나는 탈학교의 생활이었다.

먼저 자신이 담당했던 지리 수업의 한 장면을 살펴보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만히 듣고 있자면 김교신은 역사와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을

8) 정호영, “김교신의 인간화 교육 사상”, 『교육철학』 27 (2005): 314-315쪽 참조.

9) 양현혜, 『김교신의 철학』, 206쪽.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지리수업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전인수의 표현처럼 역사지리학이요 인물지리학일 터였다.¹⁰⁾ 이런 식으로 조선의 역사를 배울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조선의 역사와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침으로써 ‘조선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민족의식을 자극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하는 김교신의 노력은 ‘물에 산에’라는 이름의 답사 모임에서도 계속된다. 조선 산하를 함께 누비면서 “이놈들이 느껴라 느껴!”¹¹⁾ 외치는 그의 음성에는 조선의 지리 속에서 위인들의 정신과 숨결을 느끼면서 조선인이라는 자각을 하길 바라는 그의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다.

이러한 김교신의 학교생활은 점점 학교에 의한 제재와 배제라는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 같다. 양정학교를 그만두기 꼭 1년 전인 1939년의 신입생 입학식 중 한 장면을 살펴보자. 거기서 신입생 담임교사인 김교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왜 일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6년 전의 입학식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그때는 담임교사인 내가 친히 등단하여 교육방침을 연설하였다. 오늘은 나에게 생도를 점명(點名)하는 외에 일언반구의 발언권도 허여(許與)되지 않았다. 따라서 ... 이번은 방관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할수록 아이들이 가엽다.¹²⁾

아이들이 가엾다. 담백하게 한 마디 남긴 것이 묵직하게 가슴을 친다. 거기에 김교신의 사활을 건 교육적 실천이 담겨 있기 때문이리라. 그의 교육적 실천은 학생들과 함께 뛰는 것이었고 함께 사는 것이었다. 무엇을 뛰는가? 학교 안에서 학교를 벗어나는 길을 뚫다. 무엇을 사는가? 학교 안에서 학교를 넘어서는 삶을 산다.

10) 전인수, 『김교신 평전』 (춘천: 삼원서원, 2012), 66쪽.

11) 최남식, “내 생애의 결정”, 『전집·별권』, 165쪽.

12) 김교신, “1939년 4월 10일 일기”, 『전집7』, 62쪽.

김교신은 교사로서의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탈중심의 길을 갔다. 일본제국주의라는 중심은 교육현장에서도 강고했었기 때문이다. 이 교육현장은 일본제국주의의 재현으로서 제공되는 학교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황국신민서사가 암송되고, 신사참배를 실행하며, 일본의 언어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사상을 주입받는 수업은 전쟁 전초기지화 하는 조선 땅에서 재생산되는 중심으로서의 일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김교신은 중심의 재현으로서 조선민중을 억압하는 이러한 학교에서 탈(脫)을 감행하는 동시에 탈되어 있는 조선적 인간화 교육의 회복을 시도했다.

3) 장면 #3: 탈(脫)엘리트, 흥남질소비료공장에서

하지만 성서조선사건 이후 김교신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결국 가족과 생계를 위해 정착한 곳은 흥남질소비료공장. 이곳의 정식 명칭은 일본질소비료흥남연료용흥공장으로서는 실제로는 해군의 군수공장이었다.¹³⁾ 여기서 김교신은 교편을 잡으며 『성서조선』을 만들고 동지들과 무교회주의 성서집회를 열 때와는 다른 세상을 만난다. 조선민중과의 직접적인 생활. 이 생활은 김교신에게 탈엘리트의 시야를 열게 했다. 그들과 함께 석탄차를 끌고, 그들을 위해 하수도과 화장실을 청소했다. 조선민

13) 김교신이 일제의 군수공장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도 있다. 그것 자체로 김교신이 평화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김교신을 역사 밖의 영웅적 인물로 설정할 경우에나 타당한 비판이다. ‘성서조선사건’ 이후 김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입지는 매우 좁아져 있었다. 그때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삶은 거의 유일하게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군수공장이라는 장치 속에서 김교신의 위치는 전쟁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하는 구조의 생산자가 아니라 그 구조에 의해 억압된 또 다른 희생자였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억압받는 자들이 내는 소리다. 김교신은 군수공장이라는 체계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 중 하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교신에게 제국주의를 구조적으로 비판하는 관점이 충분히 드러나진 않는다고 하는 점은 정당한 지적이다. 그의 평화주의는 사랑에 기초한 무저항 정신을 토대로 하면서(김교신, “산상수훈 연구”, 『전집4』, 99쪽 참조), 억압에 대한 온유한 인내로 결과하는(김교신, “산상수훈연구”, 39-40쪽 참조) 사적인 신앙의 영역에 놓여있다.

중과 함께, 조선민중을 위해. 이것이 바로 『성서조선』이 품고 있었던 이상이였다면, 이제 김교신은 그 이상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상이 탈중심이었을진대, 그 실현도 탈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김교신의 근무지는 근로과 조선인 노무자 주택 서본궁 관리계였다. 서본궁은 조선인 노무자들의 사택촌이었는데, 그 꼴은 마치 케작을 늘어놓은 형상이었다. 제대로 된 문화와 복지 시설이 절실한 곳에서 김교신은 개선의 소명감을 느꼈다. 소명에 불탄 김교신의 하루일과 한 장면을 살펴보자.

출근시간 20분 전에 그는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묵상을 한다. 기도가 끝나면 원어 성서를 읽은 후 비로소 일과에 임한다. 이 예배 아닌 예배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이다. ‘선생의 말씀만이 아닌 실천에 의한 신앙생활에 감동을 받¹⁴⁾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였던 까닭이다. 조회시간이 되어 간단한 의식과 운동을 한다. 성천강 독을 달린 후 노무자들을 제방이나 나무 그늘에 모아놓고 헌병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짧은 강의를 한다. 민족을 말하고, 역사를 말하고, 종교·윤리·보건·위생을 이야기한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자 김교신은 조선 노무자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마다않고 나선다. 도로 보수작업에서 각 가정의 빨랫감 일광 소독에 이르기까지, 그의 세심한 노력은 끝이 없다.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도 김교신의 일과는 끝나지 않는다. 야학을 열어 부녀자들과 문맹자들을 가르친다.¹⁵⁾

김교신의 노력으로 서본궁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변모해 갔다. 사람의 삶에서 쫓겨났던 이들에게 다시 사람의 삶을 되돌려주는 일. 그것은 곧 탈중심의 삶을 실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람 ‘다움’을 잃었던 이들에게 잃었던 것을 되찾아 주는 현장에서 김교신은 비로소 성서와 조선을 함께 부둥켜안는 생활을 실현할 수 있었다. 탈엘리트 속에서 가장 엘리트다운

14) 新堀邦司/김정옥 역, 『김교신의 신앙과 저항』 (파주: 익두스, 2012) 135쪽.

15) 전인수, 『김교신 평전』, 177쪽.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발진티푸스의 만연 속에서도 계속되었던 그의 탈엘리트적 열정은 조선 민중들과 더불어 걸린 발진티푸스와 함께 끝을 맞았다. 1945년 4월 25일 새벽 4시 40분, 해방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지인들의 애도를 충분히 받기도 전에 한줌의 재로 바뀐 그의 몸은 죽어서도 죽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 탈중심의 살아있는 역량이 되고 있다.

2. 김교신의 사상: 성서에서 길어 올린 뜻

탈중심의 삶은 탈중심의 사상과 함께 간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근원에는 성서를 향한 김교신의 열정이 자리한다. 따라서 김교신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성서에서 무엇을 길어내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여기에 당시의 조선이 처한 현실이 중첩되면서 그의 사상은 신앙과 민족을 오가는 교차로가 된다. 이 교차로에서 신앙은 민족의 아픔을 신의 우주적 차원의 섭리로 승화하는 복음에 이르며, 민족은 세계를 품을 이상과 맞닿는다.¹⁶⁾ 이 교차로의 세 가지 다른 이름은 ‘하향적 아가페와 전적 기독교’, ‘무교회를 넘어서는 무교회주의’, ‘탈중심으로서의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이다. 이들을 차례로 둘러보자.

1) 하향적 아가페와 전적 기독교

“종교신자가 되기 전에 정직한 학도가 되고 충실한 시민이 되라.”¹⁷⁾ 이 말이 보여주듯 김교신의 신앙은 기독교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기독교를 넘어선다. 기독교의 이러한 자기규정은 거대담론이 되어 객관성을 확보한

16) 실로 김교신은 주기도문을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형제 자매와 온 인류를 염두에 두고 기구하는’(김교신, “부(附): 주기도의 연구” 『전집4』, 138쪽) 기도라고 이해함으로써 예수의 복음이 지닌 보편성을 강조한다. 나의 구원은 민족의 구원과 무관치 않으며, 민족의 구원은 또한 인류의 구원과 무관치 않다는 이해에 다름 아니다.

17) 김교신, “반야탕”, 『전집2』, 91쪽.

듯 행세하기 마련이다. 이 담론이 형성하는 경계선 안쪽에 남기를 거부하여 ‘기독교의 명칭에서 이탈’¹⁸⁾하는 이의 신앙은 이내 “주관적 신앙”¹⁹⁾이 되어 기성교회의 비판의 화살 속에 고립된다. 이러한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김교신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생활에 집중하려 했다. 기독교 담론을 넘어서서 기독교의 참 정신에 접근하려는 기독교, ‘전적 기독교’이다. 기독교라고 쳐놓은 경계 너머에서 기독교의 유일성을 호소한다.

그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사랑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터해서 이해한다. 사랑의 예수를 통해서 신 앞에 죄인인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그는 온 삶을 걸었다. 이러한 삶은 죄와 구원 사이, 무자격자와 귀중한 자 사이의 변증법적 인간 이해로 이루어진다. “즉 그는 기독교의 신(神)을 인간 존재의 근저에서부터 긍정해줌으로써 자기 확립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무자격자의 각성에 의해 자기 상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²⁰⁾로 봄으로써 기독교자의 삶을 확립과 상대화의 비이원적 시공간에 놓는다. 이 시공간은 일본제국주의에 묶여있는 조선이다. 그렇다면 이 조선 또한 확립과 상대화의 변증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의 기독교적 표현은 바로 부활이다. 부활은 김교신의 생명이해에 핵심이 된다. 그는 생명이 부활을 내장한다고 보았다.²¹⁾ 이러한 생명 이해는 이중적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는데, 김교신에게 기독교 신앙 고백은 개인의 차원만이 아니라 역사적 차원에까지 걸쳐 있기 때문이다. 신의 섭리는 개인에 멈추어 서지 않고 역사에 두루 미친다는 것으로 따라서 식민지의 겨울 속에서도 조선의 민중들은 부활의 봄을 대망할 수 있다. 생명이해와 역사이해가 부활을 교점으로 해서 교차되는 가운데 죄

18) 김교신, “나의 기독교”, 『전집2』, 85쪽.

19) 김교신, “나의 기독교,” 85; 김교신, “신앙의 주관 객관”, 『전집2』, 250-251쪽.

20) 양현혜, “김교신과 조선의 상대적 중심성의 발견”, 『한국교회사학회지』 7 (1998), 284쪽.

21) 서정민, “김교신의 생명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20(2004.3), 195-196쪽.

에서 구원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가는 부활의 과정으로서의 현세적 삶이 문제시 된다.

이러한 삶이 참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수도로 향하는 것, 병들고 가난한 자의 한숨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 십자가에 달려 비천과 치욕의 극치에 이르기까지 내려가는 것이다.²²⁾ 이러한 삶에 어울릴 이름은 사랑, 그 사랑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기에 ‘하향적 아가페’다. “병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 예수와 함께 온갖 천한 자, 낮은 자, 추한 자 사귀기를 갈구하노라”²³⁾는 김교신의 소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하향적 아가페를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하강 운동은 인생을 다해 인격의 완성을 갈구하였던 그의 상승적 소망이 도달한 도착지였다.

함석헌은 “김교신은 인격은 분명 영원히 자라는 것을 보여 준, 이 생에서 잠깐 보여 주는 그 하찮은 듯한 일도 다 저 영원 무한한 뜻의 한 구체적인 표현인 것, 그리고 육(肉)은 허물투성이일 수밖에 없지만 마침내는 뚫려 비치는 보다 높은 생명에 이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²⁴⁾라고 고백함으로써 김교신의 상승적 소망이 삶 속의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 실천이 다름 아닌 하향적 아가페다. ‘철저한 자기포기, 자아의 죽음’²⁵⁾으로서의 사랑은 인격적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자기포기와 죽음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김교신의 이해에 의하면 이러한 사랑은 유교의 인(仁)과 의(義)가 동시에 구현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²⁶⁾ 하향적 아가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독교인이 살아내야 할 사명으로서의 삶이 되었던 것이며,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의 존재와 삶이 일치하는 것을 일컬어 ‘전적 기독교’라 한다.

22) 김교신, “1936년 12월 6일-12월 16일 일기”, 『전집6』, 138-145쪽 참조.

23) 김교신, “책무를 분담하리라”, 『전집2』, 143쪽.

24) 함석헌, “김교신과 나”, 『나라사랑』 17 (1974.12): 95쪽.

25) 정호영, “김교신의 인간화교육 사상”, 305쪽.

26) 김교신, “산상수훈 연구”, 105쪽.

그런데 존재와 삶이 일치하는 기독교신앙은 기독교신앙의 완성이라는 뜻에서 전적인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생활 속에서 끊임 없이 추구되고 실현된다는 뜻에서 전적이다. 그리하여 이미 완성된 기독교 정체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기독교 정체성이 전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기독교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김교신이 요구했던 것은 세상과의 타협을 거절하는 철저한 신앙이었다.

세상과의 타협을 거절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과 쌍을 이루는 김교신의 현실이해다. 그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마 6:10)를 해석하면서, 신국의 도래, 즉 종말론적 구원이 ‘사람의 운동과 역사(役事)로써’²⁷⁾는 불가능하며 신의 뜻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생성의 운동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능력 외부에 있는 과정이라는 이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과 접촉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김교신은 그것을 인간 고난의 실존에서 찾는다. 고난 속의 회개자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철저히 순복하기를 구하는’²⁸⁾ 과정이 바로 천국이 겨자씨와 같이 왕성하게 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철저한 ‘전적’ 신앙의 요구는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보장받으려 하는 기성교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추구하는 무교회주의를 선언하게 만든다.

2) 무교회를 넘어서는 무교회주의

그러나 무교회주의는 교회 자체에 대한 저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1937년 김교신이 『성서조선』을 통해서 소개한 야마모토 타이지로(山本泰次郎)의 글은 무교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무교회주의란 결단코 교회를 타파하며, 교회와 대립 항쟁하는 일 같은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구원은 교회의

27) 김교신, “부(附): 주기도의 연구”, 152쪽.

28) 김교신, “부(附): 주기도의 연구”, 153쪽.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 소극 저열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 무교회주의의 사명이다.’ 이 복음을 명백히 하는 결과, 자연스럽게 할례와 교회와 성직이 무용하게 되는 것이지, 그 타도와 해소를 목적하는 것은 아니다.²⁹⁾

무교회주의는 외부에 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부에 적을 설정하지 않기에 무교회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운 내적 건설의 의도 또한 없다. 무교회주의는 무교회주의자를 양성하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심을 둔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주된 경로는 성서로서³⁰⁾ 성서의 진리를 살아내는 것에 목표를 둔다. ‘하나님 중심주의’³¹⁾다. 그럼에도 무교회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저항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정황 속에서 성서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무교회자는 개념에 사는 학자가 아니요, 현실 세계에 생활하는 산 사람인 고로 그 시대 그 사회의 현실에 착안하여 싸운다.”³²⁾

따라서 김교신이 교회를 비판하고 저항한다고 할 때는, 교회 자체의 존립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서 성서의 진리가 실천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교회주의에 대한 것이다. 전인수는 무교회주의가 거부한 교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교회를 신자들의 모임이 아닌 예배당이라는 건물과 동일시하는 것, ② 제도적 교회를 신성시하거나 절대시 하는 것, ③ 성직자 제도와 교회를 구원의 매개로 생각하는 것, ④ 세례와 성찬을 구원의 통로로 보는 것, ⑤ 교회 안의 비진리·비성서적인 행위.³³⁾

여기에 백소영이 정리한 교회주의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상과

29) 김교신, “우리의 무교회”, 『전집2』, 263쪽.

30) 김교신, “나의 무교회”, 『전집2』, 249쪽.

31) 김교신, “부(附): 주기도의 연구”, 138쪽.

32) 김교신, “대립 항쟁의 대상”, 『전집2』, 256쪽.

33) 전인수, 『김교신 평전』, 84쪽.

의 타협, ② 교회 내의 위계적 권위주의, ③ 성례전으로 신앙을 가두려는 것, ④ 교회, 교파 심지어는 무교회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것을 신성시·절대시하는 것.³⁴⁾

이렇게 볼 때 교회주의에 대한 무교회주의는 ‘영원히 개혁하려는 정신’이요 ‘영원히 저항하려는 정신’³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저항과 개혁의 대상은 교회 자체가 아닌 교회주의, ‘인간 중심적인 삶과 제도를 절대시하려는 시도’³⁶⁾였다.

이렇듯 무교회주의가 하나의 절대화된 제도나 이념에 저항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는 것일진대 ‘그 사회의 현실’에 따라 무교회주의는 무교회인이기를 멈출 수도,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로 김교신은 한때 무교회를 철회했다가 다시 무교회주의자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찍이 무교회주의의 경기가 좋아서 저마다 무교회, 무교회 하던 시대에는 우리는 “무교회 간판 철폐의 제의”라는 글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요새 와서는 우리는 무교회주의자인 것을 다시 선명히 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그것은 무교회주의의 시세가 불리하여 그 지도자로 자처하던 이들까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전향하듯 또는 이에 근사한 태도를 취하는 까닭이다.³⁷⁾

무교회주의를 통해 무교회를 절대화하고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자 할 때면 무교회주의마저도 내던지다가도, 교회를 절대화하여 교회중심주의로 시류가 흐를 때면 결연히 나서서 무교회주의를 다시 천명한다. 이는 인간적인 삶과 제도를 절대적인 중심으로 두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34) 백소영, “김교신의 전적(全的) 기독교”, 『기독교사상』 47.12 (2003.12). 242쪽.

35) 같은 글.

36) 백소영, “김교신의 전적(全的) 기독교”, 243쪽.

37) 김교신, “나는 무교회주의자이다”, 『전집2』, 269쪽.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으로서 탈중심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탈중심의 운동은 가장 예수의 복음에 충실하게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였던 것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이룩한다. 백소영은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무교회’는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³⁸⁾

3) 탈중심으로서의 김치 뱀새 나는 기독교

김교신의 무교회주의 스승이었던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 1861-1930)가 두 개의 J, 예수(Jesus)와 일본(Japan)에 헌신했다면, 김교신은 두 개의 C, 그리스도(Christ)와 조선(Chosun)에 헌신했다. 우치무라와 김교신 사이의 이러한 평행구도는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야기한다. 복음과 민족애에 헌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민족애의 대상이 각각 일본과 조선이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차이점은 일본이라는 민족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성과 조선이라는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탈중심성 사이에서 야기된다. 그리고 이 차이가 식민지인의 입장에서는 중심성을 주장하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 형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양현혜는 우치무라의 민족애가 지닌 한계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국가주의, 식민지 조선이라는 문제를 보는 시각, 서구 중심적 문명사관への 제약이 그것이다. 우치무라는 비전론을 주장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을 말할 수 없었던 비정치적 평화주의, 애국적 평화주의라는 국가주의 논리 때문이었다. 이 국가주의 논리는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독립으로 풀지 않는 동정론에 머물게 한다. 이는 국가주의와 더불어 서구 중심적 문명사관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단지 고대문명을 보존하기만 할 뿐인 황인종의 국가들에 대해 우월한 현대문화를 형성한 서구의 제국주의가 통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38) 백소영, “김교신의 전적(全的) 기독교”, 243쪽.

로 본 것의 연장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통치의 연장으로서 일본국가주의가 작용하면 평화주의는 식민지 통치에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³⁹⁾

반면 김교신은 두 개의 C를 반제국주의의 문법으로 전개한다. 이는 미국의 문화와 복음을 분리해 내도록 하였는데, 그의 무교회주의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회를 상대화시킨다.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를 분리함으로써 미국의 기독교회를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회 중 하나로 놓는다. 또한 미국교회는 인종차별을 수용한 점에서 회개를 필요로 하는 교회라는 비판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기독교 국가들의 제국주의 일반에까지 확장된다.

여왕 빅토리아는 기독교의 바이블 한 권으로써 지구상 가장 큰 나라를 통치하여 간다는 것을 내외에 자랑하였다. 그러나 원수를 저주하고 적을 공략하는 것만은 기독교의 교훈에 거역하면서도라도 꾸준히 실행하였다. 기타 루터의 나라 독일이 그렇고, 청교도가 건립한 북미합중국도 그렇고, 불(佛), 이(伊), 노(露), 오(澳) 등 구주의 기독교 국가가 또한 그 예에서 벗어날 수 없이 적을 미워하는 열도(熱度)가 높음으로써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된 자이며, 약소국보다 강대국을 조성한 것이다. 저들이 보낸 선교사가 가르치는 성서와 저들 기독교적 국민의 행동에는 천양(天壤)의 차가 있음을 본다.⁴⁰⁾

이러한 서구 이해는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전제로 일본을 제외한 동양을 열등하게 평가하였던 우치무라의 서구 중심적 문명사관을 넘어선 것이다.⁴¹⁾ 이에 더하여 그는 자신의 스승인 우치무라까지도 상대화한다. “나는 물론 우치무라 간조가 아니다. ... 선생이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쓴다는

39) 양현혜, “김교신, 함석헌,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內村鑑三)”, 77-80쪽.

40) 김교신, “산상수훈 연구”, 101쪽.

41) 김교신, “1930년 12월 7일 일기”, 『전집5』, 34-35쪽.

논법은 나에게 하등의 권위가 못 된다. ... 그러므로 무교회를 논(論)하든지 신앙을 의(議)하든지 우선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할 일이다."42)라는 단호한 어조는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시대가 있다"43)는 상황화로 이어지면서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를 추구하기에 이른다.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는 때로 김교신 자신에 의해서 조선산 기독교로 표현되기도 하였거니와44) 당대 조선의 처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교신이 착수했던 것은 유교의 주체적 수용이었다. 유교의 현세 순응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면서도 '조문도 석사가의'(朝聞道 夕死可矣)라는 정신적 이상주의가 유교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면서 유교의 성(誠) 개념에 주목했다.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성(誠)이 서로 교환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45) 기도의 선결 요건으로 성을 꼽았던 것이다.

또한 조선 유학자들이 의(義)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의 십자가 정신에 비교하면서, 비록 그 헌신의 대상은 다르더라도 정신적 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하는 점을 높이 샀다. 이는 기독교가 수용되기 이전의 조선 문화 속에 복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았던 그의 견지에서 비롯된다.46) 즉 그는 조선 유교의 정신적 유산을 재발견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기독교에 매개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유교 전통을 기독교 복음에 연결함으로써 서구 중심적 기독교에서 벗어나

42) 김교신, "나의 무교회", 249쪽.

43) 김교신, "재출발", 『전집1』, 329쪽.

44) 김교신, "『성서조선』의 간행 취지", 『전집1』, 317쪽.


45) 김교신, "진실", 『전집1』, 153쪽.

46) 김교신은 "그리스도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廢)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完全)케 하러 왔노라' 함은 구약성서의 교훈은 물론이고, 여타 이방의 각 성현이 준비한 도덕률까지 전부 합쳐서 최후로 완성하기 위함"(김교신, "산상수훈 연구", 72-73쪽)이라고 하여 유대기독교문화 중심주의를 벗어난 견해를 피력한다. 기독교의 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단선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전(全)역사를 포괄하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는 “종교문화적인 수평적 평등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⁴⁷⁾

이 수평은 수직과 교차함으로써 하나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하향적 아가페가 만들어내는 역설적 상승의 변증법이 식민조선의 역사라는 처지와 시대에서 전개됨으로써 형성되는 수직 말이다. 신앙은 ‘조선 반도와 세계 인류의 운명에 관하여 크게 역사’⁴⁸⁾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할 것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룩하는 것에 한 사명이 있다. “... 사랑의 봉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서는 세계를 위해 세상의 모든 비진리와 싸우며 세상을 섬기는”⁴⁹⁾ 창조적 수고자(受苦者), 몸소 고난에 나서는 창조적인 신앙인을 요청한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사의 창조에서 조선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김교신)는 식민지 조선은 제국주의의 약육강식적 세계 질서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았다. ... 이 노예의 자리는 세계사의 온갖 불의와 모순을 집약하여 정화해 내는 곳이라고 보았다.⁵⁰⁾

그리하여 조선은 세계 역사가 변혁되는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 된다.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는 종교문화적인 수평성에 역사 변혁의 수직성이 만나서 형성되는 조선산 기독교, 탈중심에서 중심의 자리를 잃고 탈중심을 들어 중심을 치는 토착화 기독교이자 민중의 기독교였다. 

47) 양현혜, 『김교신의 철학』, 121쪽.

48) 김교신, “절망과 희망”, 『전집1』, 35쪽.

49) 양현혜, 『김교신의 철학』, 124쪽.

50) 양현혜, 『김교신의 철학』, 122쪽.